

STORY.05

수학 등급
9개월이면 충분하냐?

김동엽
[연세대 컴퓨터과학]

이창협
[서울대 경영대학]

< 자기소개 >

김원중 상담과장

안녕하세요. 귀한 시간 내서 후배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

동엽

저는 강남대성에서 공부했고 현역 때 3등급으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, 강남대성에서 재수하면서 1등급으로 점수를 올린 김동엽이라고 합니다.

창협

저는 현역 시절 이과로 수능을 봤다가 재수할 때 인문계열로 바꾸기로 계획을 하고 강남대성 인문6반을 다녔던 이창협입니다.

< 수학, 원래 잘한 것 아닌가? >

김원중 상담과장

두 학생을 보면 인문계열, 자연계열 학생인데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중심이 수학입니다.
우선은 자기가 공부한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들이 봤을 때 '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냐'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.

창협

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계열을 바꾼다고 해서 처음부터 점수를 잘 받은 건 아니고요. 반 등수만 따지면 50 몇 명 있는 반인데 40대 후반 등수를 받기도 하고 괜히 바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기초적인 개념을 초반부터 선생님들을 믿고 질문하면서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다가 한 6월쯤에 수학이 조금씩 안정되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학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주고 한 9월쯤 되니까 등수도 많이 오르고 점수도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9월부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보게 된 것 같습니다.

동업

저도 솔직히 현역 시절 공부하다가 6월, 9월 평가원은 괜찮게 나왔는데, 수능에서 미끄러졌던 케이스라서 저도 수학을 어느 정도 잘 한다고 생각하여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,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능 점수 자체가 실력인 것 같아요. 그냥 점수 그 자체가 실력인 것 같아요. 나는 수학 잘 하는데 ‘실수 몇 개 해서 수능점수가 이렇게 나왔다’ 이런 식으로 자기위로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실수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그게 결국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사실을 깨닫고 ‘글씨 하나하나 쓰는 것도 다 똑바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해야겠다’ 그런 마인드로 공부했어요.

<수학 공부 슬럼프 극복 방법>

김원중 상담과장

창협 친구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어요. 수학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창협

아무래도 이과에서 넘어왔다 보니 감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저도 나름대로 학원에서 내주시는 수학과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고 6월 평가원 시험 때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도 계속 학원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동업

저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 수학을 상당히 싫어했고 재수할 때도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수학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남대성에서 주는 자료들과 짜주는 시간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정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맨 처음 먼저 한 게 수학이었어요. 시작할 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수학을 하고,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했어요. 마지막 1시간도 수학을 했는데 집에 가기 직전에 수학 공부가 진짜 하기 싫을 때 수학을 하면 수학 시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‘아 내가 그 시간에도 수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 때 했던 것처럼 집중해서 하자’ 그런 각오로 실전 연습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

<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된 시점>

김원중 상담과장

시작하면서부터 ‘나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거야’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, 성적이 오르면서 ‘더 잘 가겠는데?’라는 생각될 때도 있죠. 그 목표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.

동업

일단 목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현실적이지 않은 와 닿지 않는 목표들 있잖아요.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서 하루 단위로 제가 할 수 있는 양을 목표로 잡고 매일 꾸준히 하는 식으로 했어요. 그러다 보니 강남대성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풀면서 선생님들이 알려 주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잘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믿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

창협

‘잘 하고 있는 것 같다’라고 생각 하게 된 시기는 아마도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치른 후였던 것 같은데, 수학 점수로 반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1등 한 이후로 어느 정도 ‘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틀리지 않는구나. 학원에 의존하면서 콘텐츠들만 풀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’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

<인상 깊은 강남대성학원 수학 콘텐츠>

김원중 상담과장

강대 생활을 하다 보면 각 과목별로 콘텐츠들이 공식적인 것도 많고, 담당선생님께서 주시는 내용들도 워낙 많아요. 공식적인 수학 콘텐츠 중 가장 인상 깊었고 잘 활용했던 콘텐츠는 무엇이였을까요?

창협

‘해시태그 2750’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. 킬러문제 3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7문제를 50분 안에 풀게 하는 콘텐츠인데 초반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것도 버거움을 느꼈는데, 계속 풀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더 풀게 되고 맞추는 문제 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조금씩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.

동업

저도 우선적으로 창협학생 말처럼, ‘해시태그 2750’이 매우 좋았는데, 솔직히 ‘해시태그 2750’을 여러 번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수능을 2번 치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이게 나올까라는 마음 자체가 수능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. ‘해시태그 2750’ 문제를 풀다가 이게 나올까라는 감정이 들 때 멘탈을 잡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자체도 좋았던 것 같아요.

그 다음 모의고사 끝나고 나눠주시는 ‘쉬어’라는 콘텐츠가 있는데, 쉬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 풀기라는 컨셉으로 소책자 같은 형태인데, 제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기출들도 한 문제를 테마로 어떻게 엮는지를 구성해 놓은 문제집이어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풀었던 기출도 좀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좋았고, 킬러문항 같은 경우도 생각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.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놓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

<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>

김원중 상담과장

후배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?

동업

‘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게 내 점수가 아닐 거야’라고 부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점수는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,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심하지도 잘 나온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내가 혹시라도 그냥 넘어간 문제는 없었는지,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빈틈없이 잘 메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.

창협

저는 시험점수가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다가 수능에서 잘 본 경우거든요.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. 앞으로 치러야 하는 많은 시험을 모두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봤다고 해서 수능 역시도 못 보면 어쩌나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

김원중 상담과장

말씀들을 겸손하게 하셨지만, 제 생각에는 1년 동안에 공부의 내용,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아픔도 있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었을 수 있고, 한편으로는 좋았던 기쁜 순간들도 매우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

오늘 짧지만 수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본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

동업/창협

감사합니다.